

90분...5천만 대한민국이 함께 뛰었습니다



2014 브라질월드컵 대한민국 대 러시아의 경기가 열린 18일 오전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시민들이 이근호 선수의 선제골에 기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브라질 월드컵 한국대표와 러시아 경기가 열린 18일 오전 기성용선수의 모교인 금호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이근호의 첫골에 환호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한민국” 700여 붉은 악마들 합창

월드컵경기장·광천 CGV

18일 오전 6시 2014 브라질 월드컵 한국 대 러시아 응원전이 펼쳐진 광주시 서구 월드컵경기장엔 붉은 색 티셔츠·풍선 막대·응원 나팔 등을 입고 쟁쟁은 시민 700명이 관람석을 매우기 시작했다.

7시 정각, 대형 스크린에서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자, 붉은 악마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다. 후반 23분, 이근호 선수가 첫 슈팅에서 골망을 가르며 선제골을 뽑자, 붉은 악마들

은 “이근호~이근호”를 연방 외친 뒤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연호했다.

그간 경기를 숨죽여 지켜보던 붉은 악마들은 그제서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응원 나팔을 마음껏 불리며, “콩~콩”하는 북소리에 따라 “Reds go together”를 열창하는 함성이 하늘에 울려 퍼졌다.

같은 날 오전 8시25분 서구 광천동 CGV. 130명의 시민들은 첫 골 소식과 함께 태극전사들의 눈부신 활약을 휴대전화를 이용, 지인들에게 실시간으로 보냈다. 후반 29분, 상대팀 선수가 대표팀 골망

을 갈랐다. 떠들썩하던 응원장은 순식간에 얼얼하면서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누군가 “괜찮아~괜찮아”를 외치자, 이내 메아리처럼 퍼져 나갔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붉은 악마들은 스크린에 적힌 1-1이라는 점수를 바라보며 아쉬워했다.

최현주(여·22)씨와 민지영(여·22)씨는 “태극전사들이 선전한 경기였다. 만족한다”며 서로를 다독거리고 아쉬움을 달랬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백희준·박기용 수습기자 bhi@

“기성용·윤석영 선배 화이팅~” 흥분의 도가니

광주 금호고·광양제철고

2014 브라질월드컵 한국과 러시아 경기가 열린 18일 금호고와 광양제철고는 흥분의 도가니였다. 금호고는 기성용과 김태영 수석코치를, 광양제철고는 윤석영·지동원을 배출한 ‘축구 명가’다.

18일 오전 7시 광주 금호고등학교(교장 이우승). 선배 태극전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학생들은 평소보다 1시간 빨리 등교했다. 반별로 설치된 TV 모니터 앞에 모여 앉은 학생들은 학교 선배인 기성용 등 한국 축구 대표팀 승리를 기원하며 목이 터져라 응원했다.

붉은색 풍선 막대 등 응원도구를 두 손에 쥔 학생들은 열세 없이 “대~한민국!”, “기성용 선배 화이팅”하며 단체 응원을 이어갔다.

특히 선배인 기성용이 불을 잡고 공격에 들어갈때 “한 골, 선배 한 골만요!”라는 외침이 여기 저기서 끊이지 않았다. 이근호가 중거리 슈트로 첫 골을 넣자 학생들의 함성이 학교를 떠나갈 듯 커졌고, 얼마 안돼 러시아에 동점골을 내 줄 땐 학교 전체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학생들은 경기가 무승부로 끝난 것보다 선배인 기성용이 득점을 못올린 것을 더 아쉬워했다. 2학년 2반 오희재 군은 “선배

가 득점을 올리지 못한 게 아쉽지만 잘 싸운 것 같다”면서 “다음 경기 때도 기성용 선배를 응원하고 한국 팀이 잘 싸울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간 광양제철고등학교(교장 김성정)도 함성이 터졌다.

2학년 1반 이영현 양은 “평가전을 보고 이번 월드컵 16강 진출에 대해 어려움이 많겠다고 생각해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며 “막상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학교 선배인 3번 윤석영 선수가 공수를 넘나들며 잘 뛰는 것에 자긍심을 가졌고 또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광양=백희준기자 pyj4079@

광주FC 초대감독 최만희 브라질 통신원 관전평

“부진 씻고 16강 희망 줘라”

득점 이후 집중력 부족으로 승리 못시켜 아쉬움 만만치 않은 알제리, 체력 보강해 축제 이어가길



실점을 막을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아쉬움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다. 후반들이 잘 뛰어줬다. 마지막 평가전 때 많이 실망했을 텐데 러시아전을 통해 국민들이 희망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공격보다는 수비에 비중을 두고 경기가 안정적으로 이뤄졌다. 그래서 (수비를)

는 좋아보였다. 시청자들은 순간의 볼이 움직이는 상황을 보게 되지만 경기장에서는 공격·수비의 움직임과 거리, 간격들을 보게 되는데 공격이 끝나고 수비로 들어왔던 장면들을 통해 러시아 선수들을 경직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뜨거운 축구 열기 만큼 날씨도 많이 더웠다. 관중석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날 정도였다. 폭풍 짙는 날씨까지는 아니었지만 더운 날씨에서 경기를 하느라 구자철 등 다리에 경련이 일어난 선수들도 많이 나왔다.

마야미에서의 경기가 끝나고 돌아와서 선수들의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선수들이 국민에게 기쁨을 선사하자는 마음과 각오로 본선을 준비했다고 한다. 희망을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랐던 만큼 아쉬운 마음이다.

선수들에게 응원이 큰 힘이 됐다. 많은 분들이 경기장에서 선수들과 같이 호흡하며 대한민국을 외쳤다. 많은 브라질 현지인들도 같이 대한민국을 외치

기도 했다. 4만3000석 규모의 경기장에 4만 명 가까이 관중이 들어왔다.

다음 알제리전은 본선 진출이 걸린 중요한 경기다. 알제리라는 팀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팀이 아니다. 유럽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강적이다.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서 축제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 최만희 브라질 통신원은?

광주 FC의 초대 감독인 최만희(58) 파주 NFC(국가대표 축구팀 트레이닝센터) 센터장은 가까이에서 월드컵 준비과정을 지켜봤다. 전남기계공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최 센터장은 성남 풍생고를 축구 명문으로 만들며 지도자로서 능력을 발휘했다. 1991년 울산 현대 2군 코치를 시작으로 전북 현대 코치·감독, 부산 아이파크 코치·부단장, 수원 삼성 코치 등을 지내며 현장 경험과 행정 능력까지 두루 갖춘 인물로 꼽힌다. 국내 축구선수 박사 학위 1호 주인공.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해당 사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노안 치료 대상자입니다

노안시력교정수술로
돋보기, 안경 없는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해결
· 노화된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바꿔서 백내장과 함께 노안해결
· 각막에 초점일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해결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다시살아나는 부동산 시장!!

2014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신투자전략 무료 특강

99% 적중률 최고의 부동산 실전문가 김영표 대표가 말하는 소액으로 생겨섬 솜아나는 월세나오는 부동산을 찾아서...
종자돈 3천~1억으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소	NC백화점(구.현대) 10층 문화센터
일시	2014.6.20.(금) 2시/7시 선택
문의전화	062)383-1330(사전예약)

강/의/내/용

- 2014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공개
- 광주·전남 토지투자 새로운 전략 및 뜨는지역 대공개
- 광주·전남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주택시장 투자전략
- 수익형 부동산 틈새 아이템 투자전략 대공개
- 3천~1억 토지투자로 월세받는 투자비법 공개
- 개발지 성공투자하는 비법공개
- 도시 재생사업으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 투자전략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가 전문가
(현)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영지부동산 아카데미 소장
(현)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다수특강
(현)전국순회 부동산세미나 80회 이상

NAVER 영지R&D 부동산투자연구소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